

AIIB, 한국에 인도 인프라 투자 '러브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국민연금 등 국내 큰손과 총 8500억규모 펀드 조성 성사면 첫 공동 프로젝트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개발을 목표로 지난해 출범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KIC) 등 한국의 큰손들과 손잡고 총 8500억원 규모 '인도 인프라 펀드' 결성에 나선다. 성장 잠재력이 큰 인도 인프라 시장에 본격 참여해 인도 전역의 개발사업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인도 인프라 펀드는 중국 주도로 설립된 AIIB가 한국과의 첫 공동 프로젝트 일환으로 조성된다는 점에서 한중은 물론 글로벌 투자업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AIIB는 최근 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8500억원 규모 인도 인프라 펀드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6월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인 AIIB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은 뒤 본격적인 자금 모집에 착수할 방침이다.

인도 인프라 펀드는 인도 전역에 위치한 공항, 도로, 에너지, 철도, 터널, 항만 등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자금 모집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투자를 시작할 예정이다. 펀드 운용 기간은 2028년까지다. 연간 목표수익률은 15% 이상으로 정했다.

AIIB가 인도 투자를 결정한 것은 인도가 최근 중국보다 빠른 경제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프라 시장 발전이 늦어 사업 기회가 많다는 판단에

AIIB 인도 인프라 투자 펀드 개요

투자대상	인도 공항·도로·항만 등 인프라
펀드규모	8,500억원
운용기간	2018~2028년
목표수익률	연 15% 이상
투자자 (투자금액)	AIIB(1,700억원)·국민연금 등 포함한 글로벌 주요 기관(6,800억원)

따른 것이다. 실제 인도는 최근 수년간 연평균 8~9% 수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인도 증시의 섹터 지수도 최근 1년 새 13% 이상 치솟았다. 그러나 도로·철도·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은 주요 선진국은 물론 중국 등 같은 이머징 국가(개발도상국)와 비교해봐도 매우 낙후돼 있다는 분석이다.

AIIB 관계자는 "최근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인프라를 육

성한다는 계획을 밝혀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현재 인도 정부는 △도로 인프라 확장 △고속철도 투자 △항만 현대화 △전력시장 개편 △공항 투자 확대 △스마트시티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60조원대 10대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조성하는 인프라 펀드의 자금 모집은 핵심 출자자(앵커 LP)인 AIIB가 170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자금을 글로벌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AIIB 측은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를 포함한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들과 만나 투자 여부를 타진할 계획도 세웠다.

A25면에 계속

송광섭 기자

▶레이더M(RaytheM.kr) 보도

복지만 있고 구조개혁 실종

매경·한선재단 대선공약 분석

제19대 대통령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벌써부터 선거 후 국가재정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가 코앞이지만 대선후보들은 아직까지 공약집조차 발간하지 않았다. 후보 등록 때 각자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재원조달 방안은 낙제점이다.

▶관련기사 A3면
매일경제신문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은 지난달 주요 후보별 '50문50답'을 통해 분야별 정책을 검증한 데 이어 이번엔 10대 공약을 집중 분석했다. 평가 결과를 압축하면 '재원 계획 부실'과 '구조개혁의 실종'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경우 10대 공약 가운데 소요 비용을 밝힌 것만 따져도 연평균 18조원이지만 실제로 모은 공약을 이행하려면 몇 배의 돈이 더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캠프는 중기재정

운영계획상 재정지출을 연평균 7% 수준(현행 3.5%)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5년간 240조원가량 총지출을 더 늘리겠다는 고백과 다름없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자신이 내건 모든 공약을 실천하려면 연간 40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박근혜정부에서 184조원 늘어나 지난해 627조원을 기록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총당부채까지 합하면 1433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대선후보 가운데 국가채무 축소 방안을 제시한 사람은 전무하다.

유력 후보인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증세 계획을 내놓지 않는 점도 솔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자연적인 세입 증가나 지출예산 조정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주장인데, 이는 박근혜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의 복사판이라는 비판마저 나온다.

A3면에 계속

기획취재팀

알립니다

서울머니쇼 사전등록 서두르세요



내달 11~13일 코엑스서 개최

매일경제신문과 MBN·매일경제TV가 아시아 최대 종합 재테크 박람회인 '2017 서울머니쇼'를 5월 11~13일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합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서울머니쇼는 국내 최고 투자 전문가 50명이 참석해 새 정부 출범과 금리 상승기에 대비한 재테크 특강을 엽니다. 또 110개 은행·증권·부동산·보험·은퇴준비·창업 관련 업체들이 대거 참여해 재테크 상담도 제공합니다. 서울머니쇼 입장권과 재테크 특강 참여를 위한 사전 등록 홈페이지(www.seoulmoneyshow.com)를 통해 하면 됩니다. 사전 등록하면 1인당 5000원의 참가비가 없이 무료 입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A16면
◇일시·장소=5월 11일(목)~13일(토) 오전 10시~오후 6시, 삼성동 코엑스 B홀
※ 문의=서울머니쇼 사무국 (02)6000-8370~2, money1@seoulmoneyshow.com
주최 = 매일경제신문사 MBN 매일경제TV



남선 두 후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KBS스튜디오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TV 토론을 앞두고 긴장한 표정을 보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文·安, 격한 네거티브 감정싸움

대선후보 3차 TV토론

안철수 "내가 甲철수입니다" 취임·교수채용 국회서 해명" 文 "나 말고 국민 향해 설명"

'외교·안보'와 '정치개혁'을 주제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첫 번째 토론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선론으로 굳어져 가는 선거 구도를 흔들기 위해 문 후보를 집중 공격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문 후보에 대한 공격을 대신 방어해주면서도 자신의 개혁성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A5·6면
23일 KBS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향해 네거티브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문 후보에게 "제가 갑철수입니다, 안

철수입니다"라며 따지고 "문 후보의 아들 특혜 채용과 아내의 서울대 교수 채용 문제를 국회의 상임위에서 동시에 해명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저한테 묻지 말고 국민을 향해 설명하고 해명하라"고 맞받아쳤다. 중도표를 확보하려는 1~2위 후보 간 감정싸움 성격이 짙었다.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는 문 후보를 상대로 '송민순 논란'을 추궁했다. 안 후보는 이수리 선거 구도를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바꾸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 후보는 "문 후보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에 물어본 것에 관해서 말을 바꿔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 후보는 "오늘 우리 당에서 2007년 11월 16일 청와대 회의와 11월 18일 회의 내용을 담은 자료를 공개했다"며 "이를 다시 확인해보고 그래도 의문이 있으면 다음 토론 때 질문해주시길 바랍니다"고

일축했다.

유 후보와 홍 후보는 또 안 후보를 향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놓고 말을 바꾼 이유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의 역할에 대해 공격했다. 안 후보 쪽으로 보수표와 TK 표심이 이탈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토론 초반에는 과거 '돼지 흥분제'를 이용한 전구의 성범죄 모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향해 다른 후보들이 공식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그 강도는 후보들마다 달랐다. 홍 후보의 사퇴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자 때문이다. 심 후보와 유 후보, 안 후보는 이구동성으로 홍 후보의 사퇴를 요구한 반면, 문 후보는 "자격이 없다"고만 했을 뿐 직접 후보 사퇴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정치개혁 분야 토론에서는 각 후보들이 각론에서 차이를 보였지만 검찰과 국가정보원 개혁, 대통령 권한 축소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김기철 기자

주식부자 지분가치 1년새 3조 증발

매경 상위 100명 증감 분석

서경배 '사드 직격탄' 1조7천억 줄어 최대 이견희는 3조5천억 ↑

국내 100대 주식부자들의 지분평가액이 1년 새 3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200만원을 넘어서 삼성전자의 절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사드 보복에 직격탄을 맞은 유동·화학·자동차 업종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해당 기업 오너들의 지분가치가 급감한 탓이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은 1년 만에 지분가치가 1조8000억원 가까이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관련기사 A25면
23일 매일경제가 에프앤가이드에 의뢰

지분평가액 감소 상위 5명 (단위=억원)

주주	직책	주식평가액	감소액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78,380	-17,755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	13,138	-15,006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7,180	-7,812
정용구	현대차그룹 회장	41,956	-6,365
정영선	현대차 부회장	22,901	-6,340

*감소액은 1년 전 대비

해 지난 19일 기준 국내 주요 개인주주들의 지분가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상위 100명의 지분평가액은 총 97조101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100조1072억원) 대비 3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분가치 감소폭이 큰 주주들은 대부분 사드 관련 실적 감소 우려가 큰 기업들로, 아모레퍼시픽 롯데쇼핑 현대차 오리온 지분을 보유한 오너 6명의 지분은 작년

4월 20조5138억원에서 1년 만에 16조2560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9조5000억원을 넘었던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아모레G의 2억 보유)의 지분평가액은 7조8380억원으로 1년 만에 1조7755억원 급감했다. 중국인 입국자 수 감소에 따른 면세점 매출 둔화 예상에 수년간 이어져 오던 성장세가 꺾일 것이라 우려가 제기되며 아모레퍼시픽·아모레G 주가가 20% 넘게 급락했기 때문이다.

롯데그룹 오너 일가 지분가치도 크게 하락했다.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롯데쇼핑외 6억)은 계열사 대부분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지분평가액이 1조6401억원에서 1조3551억원으로 줄었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롯데쇼핑외 4억)도 지분평가액이 6000억원 넘게 감소했다.

반면 이견희 삼성전자 회장은 1년 새 3조5615억원의 지분평가차익이 발생했다. 흥라희 전 리얼스 관장도 8199억원의 평가차익이 생겼다. 이용건·윤진호 기자

You never actually own a Patek Philippe. You merely look after it for the next generation.

PATEK PHILIPPE GENEVE
Begin your own tradition.

MyungBo Inc. LOTTE AVENUE 2F 73, Namdaemun-ro, Jung-gu, Seoul
ORIENTAL WATCH COMPANY GALLERIA EAST B1 407 Apgyeong-ro, Gangnam-gu, Seoul
MyungBo Inc. SHINSEGAE CENTUM 1F 35 Centumnamdae-ro, Haeundae-gu, Busan

Annual Calendar Ref. 5205G